

# newsletter

##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제 16호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 발행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http://http://insdv.nk.ac.kr/SSK>

→ 공동 연구원 칼럼

##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최근 북한은 관광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필두로 시작된 김정은 시대 관광 개발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삼지연시를 혁명사적지로 새롭게 조성하는데 이르고 있다.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항, 호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관광’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홍보에도 힘쓰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에서 관광산업은 외국 관광객 유치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이 된다. 다시말해,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틈새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북한을 여행하는 외국인 가운데 90%가 중국인이며 이들의 북한관광은 대개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의 행적을 둘러보는 ‘홍색(紅色) 관광’으로

설명된다. 근래에는 북한의 개발구와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는 비즈니스 관광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여행사가 단체관광을 모집하여 평양 시내, 묘향산, 북측 판문점을 둘러보는 코스가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관광 전문 중국 여행사의 웹사이트에서는 평양 시내 곳곳의 풍경,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 조중우의탑 헌화, 공연 관람 후기 등 ‘신비의 나라’ 탐방기를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변에서 만난 조선족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갈 때면 편한 마음이 든다”는 분도 있었고 “현대 중국 사회가 잃어버린 그 무언가가 그곳에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 마오쩌둥의 어록과 배지, 대약진 운동 시기의 공동 식당을 테마로 한 식당의 유행, 소위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서 포착되는 현상만은 아니다. 동구권 붕괴와 소련의 해체 이후, 구 동독지역과 동유럽 전역에 나타났던 ‘포스트사회주의 노스텔지어(post-socialist nostalgia)’는 불평등, 계층 문제 등 체제 이행 과정에서의 진통을 함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정서의 확산을 국가가 나서 흡수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중국 일부 도시주민들이 마오쩌둥 시절 유적들을 답사하는 데에서 시작된 홍색관광은 2000년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홍색관광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애국주의 교육과 경제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정치경제적 효과도 기대하였다. 중국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상

품 형태로의 소비가 중국인민의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중국에서의 북한관광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통합 이데올로기의 부재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대응,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의 피로감에 따른 좋았던 옛 시절을 기억하는 문화적 실천이 맞물리는 현장일지도 모르겠다. 더해서, 북한-중국의 끈끈한 관계와 북한 체제의 생존문제가 얽혀 들어가는 접점이기도 하다.

노스텔지어는 ‘잃어버린 장소나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한다. 훗날 북한 주민은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그리워하게 될 것인지, 또 북한 체제는 그 기억을 어떠한 형태로 호출하게 될 것인지...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례는 참고해볼만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최선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 → 연구 성과

이우영, 이은정, 2019, **분단체제 통일의 마음통합 - 독일과 남북한 사례 연구**

Woo-Young Lee & Eun-Jeung Lee. 2019. "The Issue of Mind Integration in the Unification of Divided Systems: A Case Study Focused on Germany and the Two Koreas." *Historical Social Research* 44(4): 253-268.



이 글에서 필자들은 마음통합(mind integration)에 대한 역사사회연구(Historical Social Research) 포럼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동독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고찰한다. 필자들은 "마음(mind)"을 감정, 정서, 의지, 감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마음 체계(mind system)는 남북한 사람들 성향과 행위의 기초(foundation)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정치체제의 통합과 같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던 유형의 통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문화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심화함으로써 기존 통합모델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들은 네 가지 차원에서 남북한 마음 통합의 문제에 접근한다. 첫째, 민족적·정치적 정체성의 불일치와 모순으로 인한 한반도 갈등의 성격을 규정한다. 둘째, 한국과 북한 통합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분석한다. 셋째, 재독 한국인과 본토 한국인들의 인식 차이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의 북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관점을 탐구한다.

이하연, 이우영, 2019, **남북한의 통합 인식**

Hayeon Lee & Woo-Young Lee. 2019. "The Perception of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istorical Social Research* 44(4): pp. 293-307.



이 연구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생각, 가장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남북한 통일 유형, 가장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통일 유형, 통일의 찬반여부 및 통일의 필수요소 등을 객관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덧붙여, 이 연구는 설문응답자들을 성별, 연령, 정치성향 등을 토대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통일의 형태는 경제적 파트너십 또는 경제공동체 구축 및 공동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지리적 통합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설문참가자 사이의 큰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 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이러한 인식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미, 박주화, 2019, **협력을 통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갈등 사회의 평화 달성**

Young-Mi Kwon & Juhwa Park. 2019. "Peace through Cooperation or Peace through Strength? How to Achieve Peace in the Very Intractable Conflict Socie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44(4): 269-292.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됐던 한국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런 공식적인 남북한의 전쟁 상태에서 한반도 갈등은 다루기 힘든 문제였다. 이 논문은 한반도 평화 달성 방법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태도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들은 군사적, 협력적 국제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전국 규모의 조사

를 실시하였다. 필자들은 또한 이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했다. 국제적 화합과 평등의 가치와 더불어 평화에 대한 태도가 협력적 국제주의에 대한 최고의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적 화합과 평등의 가치와 더불어 전쟁에 대한 태도가 군사적 국제주의에 대한 최고의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경, 1950~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문학의 “독자-인민” 만들기

Tae-Kyung Kim. 2019. The Making of the “Reader-People” in the 1950-1960s North Korean Socialist Literature, *Asian Perspective* 43(4): pp. 699-719.



이 논문은 전후 북한문학의 “독자-인민(reader-people)” 만들기에 대한 연구이다. 덧붙이자면, 이 논문은 사회주의문학 3부작(당 검열, 당 지도 하의 “붉은” 작가들, 그리고 독자로서의 인민)의 첫 번째 해당하는 연구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소비에트 문화의 수용과정에서 북한의 독자-인민은 새로운 사회주의 문학의 전제조건으로서 정의되고 조직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독자-인민” 만들기는 독자 혹은 인민에 대한 담론과 실천과 관련된 소련의 “인민성(narodnost)” 개념의 수용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독자 개념과 창작에서의 재능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인민성 개념이 수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둘째, 인민들의 문화 활동이나 대중적 예술 형식의 장려와 같은 정책들은 사회주의 문학의 주체로서 독자-인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독자-인민 만들기의 이론적, 조직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토착화 노력이 문학 창작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문학 공동체의 조직화 과정에서도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김성희, 2019. 노동의 운율과 순교의 서사 — 대기근 시기와 초기 선군시대 북한문학이 그려낸 일상과 죽음 (1994~2002)

Kim Sunghee. 2019. The Prosody of Working and the Narrative of Martyrdom: Daily Life and Death in North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Great Famine and the Early Military-First Age (1994-2002). *Acta Koreana* 22(2): pp. 349-368



김정일 정권은 대기근 시기와 초기 선군시대에 노동의 의미와 목적을 변화시키려 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북한 정권은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노동을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 행위로 변형하려 했다. 무엇보다 정권에게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동자들을 일터에 묶어놓는 것이 중요했다. 이 시기 북한문학은 물질적 이득보다는 정신적 계몽을 위해 노동하는 이들을 그리는 일이 많았다. 극단적인 경우, 생계보다는 명예로운 죽음 자체가 노동의 목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문학작품에서 노동자들이 국가, 당, 지도자를 위해 스스로 열사의 길을 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송상원의 『총검을 들고』(2002)를 분석하여, 세기의 전환기에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고 죽어갔는지를 보여준다.

## → 연구 단 동 정



## (사)한국코다이협회 주최,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마음통합연구센터 주관 〈한민족 통일 합창축제-세미나 : 통일 합창 & 통일 음악교육〉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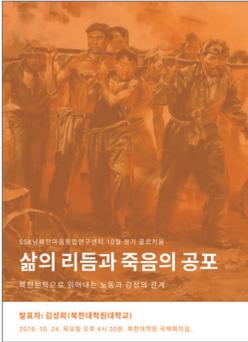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마음통합연구센터는 북한대학원대학교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오는 10월 10일 ‘통일 합창 & 통일 음악교육’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코다이협회가 주최하고 통일부, 교육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10월 9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진행되는 합창축제를 시작으로 10월 10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국내 세미나, 10월 12일 중국 연변군중예술관 해외포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이우영 센터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됐습니다. 장영목 전 대구예술대 총장의 ‘한국 합창음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정가단 ‘아리’ 고상미 대표의 ‘북한 민족성악의 합창법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하승희 박사의 ‘북한 공훈국가합창단의 등장과 변화’의 주제로 국내학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변대 예술학원 리정 교수의 ‘북한 합창 발전과 공훈합창단’, 연변대 예술학원 박영일 교수의 ‘북한 음악교육과 연변음악교육의 발전 상황’, 베이징사범대 양리메이(Yang Limei) 교수의 ‘중국의 음악교육과 민족음악’, 연길시 소년궁 전금화 예술부부장의 ‘중국 조선족 동요 백년사’의 주제로 해외학자 발표도 있었고, 6개의 주제발표에 대해 국립국악원 천현식 학예연구사와 경인교육대 권덕원 교수 한국음악교육협회 송진범 부회장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의 음악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남한과 북한, 중국의 음악교육과 합창의 상호이해 및 교류와 함께 통일시대 공동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음악교육 지표를 제공하고 남북한 예술인 교류 증진과 통일한국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연구 단 동 정



## 콜로키움 (10월 24일)

본 연구센터에서는 10월 2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본 연구센터의 전임연구원인 김성희 박사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김성희 박사는 '삶의 리듬과 죽음의 공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북한 문학에서 그려지는 북한주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미지, 인식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 콜로키움 (11월 8일)

본 연구센터에서는 11월 8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왕배 교수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 김왕배 교수는 '혐오, 한국사회를 보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감정에 대한 개념정리와 한국사회에 나타난 여러 혐오증상들, 그리고 혐오가 발생하는 사회적 원인 등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 → 연구 단 동 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센터의 '실험과 실천'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사업 뮤지컬 '외딴섬'

지난 12월 3일과 4일, 뮤지컬 '외딴섬'이 대학로 가나의 집(열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뮤지컬은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센터의 '실험과 실천'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연구센터는 남북한 마음통합을 위한 실천적 지향으로써 뮤지컬 '외딴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습니다. 뮤지컬 '외딴섬'은 자유를 원하는 탈북민들이 탈출 도중 겪었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그려낸 이야기로 실제 탈북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탈북민 3만 3천 명 시대! 북한이라는 전 세계의 외딴섬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힘겹게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하지만 그들은 하나원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외딴섬인 임대아파트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립된 탈북민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줬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대한민국이 정말 그들이 바라던 세상일까요? 뮤지컬은 관객들에게 질문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 → 향후 일정

### 심연북한연구소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신년워크숍

2020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의 신년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인천 영종도 영종 스카이 인터내셔널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조교 등 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이 참석하여 2020년 1년간 추진할 사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2020년 정기 콜로키움

2020년 새해에도 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에서는 매월 1회씩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1월 30일에는 강릉원주대학교의 이동기 교수님을 모시고 독일통일에 대한 강연을 개최합니다. 2월에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천자현 교수님을 모시고 정기콜로키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1월 콜로키움

강사\_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일시\_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 30분

장소\_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



##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 행사 보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경남대 극동研**,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미래' 국제학술회의 / 통일뉴스 2019.9.20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마음통합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가 오는 10일 본교 대회의실에서 '한민족 통일 합창축제-세미나 : 통일 합창& 통일 음악교육'을 개최한다.

**북한대학원대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10일 '통일 음악' 세미나 열어 / 토크데일리 2019.10.7.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간 '관계 맺기'의 차원에서 '문화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경 교수** "남북 문화통합 불가능... '관계 맺기' 차원의 접근해야" / 뉴스핌 2019.11.5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틀거리에도 한반도 평화 논의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축에 합의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그 결과 김동엽 교수의 평가처럼 남북 간 군사부면 긴장 완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구 교수는 강조했다.

**한반도 넘어 동북아 평화로 "담대한 결단해야"** - 프레시안 창간 기념 토론회 / 프레시안 2019.10.4

토론회에 참석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길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새로운 길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다자회담 등 일종의 기획자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시계 속 줄어든 한국의 역할... 남북관계 개선될까 / 이주경제 2019.10.29.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평가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통일연구원 주최로 오는 18일(수) 오전 10시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 2세션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군사합의화 교류협력 분야 성과와 과제는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통일연구원**, 9.19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유코리아뉴스 2019.9.10.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가 '신뢰의 조건과 평화프로세스: 증여에서 인정으로'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세진 성공회대 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4세션에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한다. 정병호 한양대 교수가 진행하는 5세션에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한다.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의 성황 / 세계일보 2019.11.9.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소장 한금윤)는 '제14회 인문주간'을 맞아 28일부터 31일까지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을 축제의 장으로 초대한다. 분단 문제를 문화·사회적 시각에서 연구해온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분단의 사회심리학'을 주제로 28일 강연한다.

**삼육대** "시민과 통일을 노래하다" / 교수신문 2019.10.25

##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 인터뷰



“김정은 정권 이후에 특히 북한 문화계 내부의 대대적인 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조 사업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북한 내외 환경이 바뀌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취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합하기 위해서 장르들을 전반적으로 개조하고 있는데...”

이우영

[클로즈업 북한] 변화 모색 북한 영화...현주소는? / KBS 2019.10.5.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내부적으로는 문화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고 있다"며 "문화재 관리가 가능할 만큼 '정상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며, 이를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北, 문화재 관리 박차...고려 혜종왕릉·구석기 유적까지 / 한국경제 2019.11.27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공식적인 이동통신 가입자 외에 중국 쪽에서 들여온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있어 실제 휴대전화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공간성에서 자유로운 기기인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재조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휴대전화 사용 후발주자인 북한은 더욱더 빠른 발전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경

北서도 '셋! 휴대전화는 잠시 OFF'...휴대전화 에티켓' 강조 / 연합뉴스 2019.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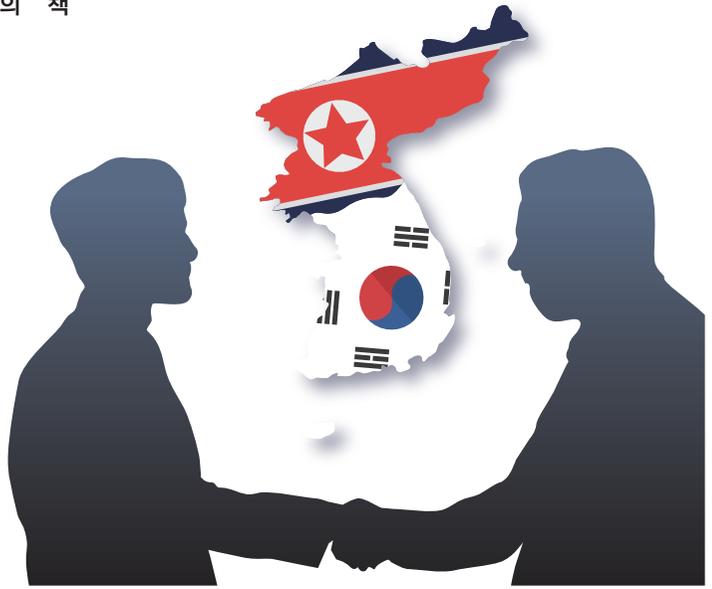
### 칼럼

제재로 인해 북한의 분배 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는 해당 국가의 상층부보다는 하층부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돼 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탈북민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양문수

[인사이드칼럼] 제재 강화 이후 北 주민 생활 / 매일경제 2019.11.20

→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 문익환의 평화사상과 한반도 평화과정의 정치철학적 기초

북한의 평양출판사가 재미동포학자 장석을 저자로 2002년 발간한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에는, 문익환과 김일성의 만남의 내용이 실려 있다. 둘의 대화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1년 북한의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위의 책은 1989년 문익환의 평양방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익환목사는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을 통하여 마침내 평양 도착 9일째인 4월 2일의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자주적평화통일과 관련한 원칙적문제 9개항>>에 대한 합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위의 인용에서 두 가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문익환을 통해 자신들의 대남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문익환의 평화사상이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

철학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북한의 말을 들어 보자. 문익환과 김일성이 합의했다고 하는 9개항 가운데 두 항이다.

4.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 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6. 문익환목사는 교차승인, 교차접촉에 대한 북의 거부적립장과 통일의지를 확인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쪽은 문익환목사가 주장하는 북남교류와 점진적인 연방제통일방안이 두 개 조선을 지향하는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두 조항을 통해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현실 사회

주의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북한은 흡수통일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인다. 문익환이 제안한 남북교류와 점진적 통일방안은, 통일담론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북한에게 새로운 탈출구였다. 북한은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에서 등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개념이 1989년 문익환의 방북을 계기로 상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과 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했다. 이 2항은 '자주'의 문제를 거론한 6·15 공동선언 1항과 더불어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의 소재였다. 남쪽에서는 이 2항이 북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북한에서도 사실상 남의 연합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련방련합제》와 관련해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련합련방제》가 고려련방제를 포기하고 남《한》의 련합제를 수용한것이라는 주장이나 고려련방제를 국가련합통일안과 기능주의적으로 절충한것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리해라는 그것이다.*

북이 연합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국가연합에서 연방으로의 이행이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연합에서 연방으로 이행하면서 전쟁을 거쳤다.

엄밀하게 보면,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통일 '이후의' 상태이고, 연합제는 남과 북의 주권이 인정되는 통일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 2항을 둘러싸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6·15 공동선언 2



항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한 통일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6·15 공동선언 2항을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절충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갈등은 잠재화되었지만, 한반도 평화과정이 진행되면 2항을 둘러싸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이 다시금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예상되는 갈등들의 '전환'(transformation)을 위해, 문익환의 평화사상을 반추하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과정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익환의 평화사상은 김대중정부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햇볕론자들이 의거하고 있는 정책의 성서적 기초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다.

*아무에게도 악으로써 악을 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 나님의 진노에 맡겨 두시오. 성서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보상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또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 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엮는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시오. (새번역 성경)*

이 『로마서』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햇별론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남은 선이고 북은 악이다. 햇별론의 혁신은 악을 다루는 ‘방법’이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명령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입안하게끔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 대 북한을 선 대 악으로 설정하는 것은, 한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주장만큼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보편의 문제 설정이다.

문익환은, 한반도의 ‘민족’에 주목하면서도 ‘민주’의 문제설정을 놓지 않고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비견되는 새로운 실험으로 문익환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문익환의 말이다.

*갈라진 겨레를 하나로 묶는 길은 ‘민주’의 길밖에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문익환은 남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의 사회주의경제를 지향하는 모형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실험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려 한다. 즉 한반도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이 어울리는 한반도 평화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익환의 평화사상은, 민족의 철학과 타자의 철학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을 강조하지만 결국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흡수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한 쪽을 타자이면서 적으로 생각하는 양 극단의 사유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문익환의 평화사상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오히려 문익환의 평화사상은 그의 삶과 실천을 통해 그 정수를 드러내곤 했다. 그렇기에 두 철

학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했다. 관찰자의 시선에서 문익환의 평화사상은 과도한 민족의 철학으로 읽히곤 했다. 한반도 평화과정의 한 복판에서 있었던 문익환의 평화사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정치철학적 기초가, 두 철학의 균형 속에서 정초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자를 관용하는 차이의 철학과 그 철학에 기초하여 같음을 찾아나가는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대한 탐구에서, 우리는 차이를 가지고 있던 이방인을 하나의 주체로 호명했던 사도 바울처럼,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음을 찾고자 했던 문익환을 한반도 평화의 사도 바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갑우(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 장석(2002).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 알랭 바디우, 현성환 옮김(2008). 『사도 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
- 슬라보이 지젝, 김정아 옮김(2007). 『죽은 신을 위하여: 기독교 비판 및 유물론 신학의 문제』. 서울: 길.
-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1996).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